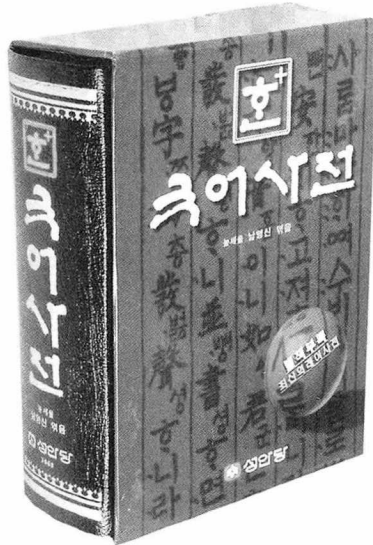


고유한 우리말의 제모습 지키는 파수꾼

《훈 국어사전》 펴낸 남영신 한국어문연구소 소장

언어는 인류문명의 출발이다. 언어가 있어 한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키우고, 한 민족의 심성과 사유체계를 가늠한다. 언어는 곧 인간활동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말에 담긴 이 엄청난 철학을 실천에 옮겨온 남영신(49, 한국어문연구소) 소장이 세월을 잊고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열매를 맺어 제대로 된 우리말 사전 헌권을 탄생시켰다. 이미 《우리말 분류사전》(1987)과 《국어용례사전》(1995)으로 국어사전의 개념을 새롭게 환기시킨 바 있는 남소장이 이 사전들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낱말 14만여개를 올림말로 삼은 《훈 국어사전》(성안당)을 펴냈다.



“자기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가 돼야 자기의 문화를 제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언어는 주체적인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지요.”



남영신 소장

다른 사전에서 볼 수 없는 특징 지녀

“자기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가 되지 않고는 자기 문화를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언어는 주체적인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전을 통해 온통 한자어와 외국어로 뒤덮인 피폐화된 우리말이 맑고 깔끔한 제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시골 구석구석에 숨어 있고 문혀 있던 토박이말을 캐내고 뽑아내길 20여년. 4만2천여 낱말을 낚았다. 그들을 다시 갈래에 따라 나누어 모아 《우리말 분류사전》을 낚았고, 각 낱말의 살아 있는 용례들을 모으다보니 《국어용례사전》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남소장이 외롭게 우리말 사전에 쏟은 그 많은 시간과 정열은 “바로 이제까지 기다리던 사전”이라며 감동 어린 목소리를 전하던 독자의 말 한마디에 빛으로 되살아났다. 결국 그 빛이 우리말 전체의 모습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로 이어지고, 순수 작업기간 10년끝에 누구나 책상머리에 두고 뒤적이며 볼 수 있는 모범적인 국어사전으로 태어나게 된다.

‘모범적인 국어사전’이란 남소장의 국어사전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언어사전의 기본이라 할 낱말의 어원을 밝힌 점이다. 각 낱말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해왔는지 알게 됨으로써 우리말의 정체성을 캐낼 수 있다. 예컨대 ‘서울’이 ‘소부리/서벌/서라벌/서불/서울/서울/서울’의 과정을 거쳤음은 익히 알겠지만, 한자어 ‘수당(手

當)’이 일본어 ‘테아테(てあて)’를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한 것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외래말의 경우 그 말이 어떤 경위로 자리 잡게 됐는지도 살필 수 있다. ‘양키(Yank-ee)’는 “원래 뉴잉글랜드 원주민의 이름이었는데, 독립전쟁 때 영국인이 미국인을 얹잡아 이른 말로, 남북전쟁 때는 남군이 북군을 그렇게 불렀으며, 지금은 외국인이 미국인을 얹잡아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상세히 일러준다. 한자어 또한 그 한자 새김을 일일이 밝혀 쓰임새를 명확하게 한 것도 다른 사전에는 없던 시도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전에서 가장 고마워해야 할 부분은 그 낱말이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게 쓰인 용례를 풍부하게 실었다는 점이다. 프랑수아들이 라틴어에 가려 빛을 잃었던 불어를 명작의 되새김으로 살려냈듯 소박하면서도 빼어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낸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사전의 용례를 통해 사용함으로써 더욱 빛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사전을 이용하는 독자는 국어뿐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상식도 두루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가요를 비롯해 한 세기 전만 해도 널리 불렸던 청산별곡, 서경별곡, 만춘춘, 쌍화집 같은 멋들어진 우리 가사나 가요, 타령 같은 노랫말을 해설과 함께 붙여 놓았거든요. 또 우리 문학작품 속의 주옥 같은 문구들을 용례로 실어 그 문구들에 녹아 있는 문학적성과 논리성·철학성의 깊어치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읽는 재미 풍성한 폭넓은 용례

실제 이 사전을 이리저리 뒤적이다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낱말마다 붙여놓은 용례를 읽는 맛은 다른 사전에선 느낄 수 없는 각별한 즐거움이다. 우리 문학작품 속에 뛰어난 문장으로 엮여져 있는 낱말들이 사전을 읽는 독자의 가슴 속으로 고스란히 살아 움직여 오는 듯하다.

‘탄죽’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난들 어찌겠나 별이 떠야 입을 보지, 자네도 길가처럼 벌써 탄죽을 치고 싶은가”(김주영-객주) 같은 걸쭉함, ‘자옥길’이란 말에서는 “우거진 풀숲의 외진 자옥길에 돌이 눈에 띄지 않아서 쫓아오는 놈들과 맨주먹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홍명희-임궏정)같은 호방함을, ‘자울자울’을 찾으면 “이 햇볕을 들고 물가로 가서 물 속을 환하게 비추면 된다. 그러면 그 불빛 아래 자울자울 잠을 자고 있는 온갖 고기들이 다 있다. 깊은 곳도 아니고 장딴지쯤 닿는 물에 말이다”(김용택-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같은 고즈넉함이 함께 느껴진다. 문학작품 속에서 살아 꿈틀대는 풍부한 토박이말의 실체를 만나는 순간이다.

문학작품 뿐만 아니라 김광연(인하대 민속학과) 교수나 황병기(이화여대 국악과) 교수의 저술 등 전통과 민속에 얽힌 낱말의 뜻을 밝히기 위해 폭넓은 용례를 찾아모은 것은 이 사전만이 기울인 정성이다.

“우리말을 제대로 알고 쓰자는 게 결국 이

사전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모든 말이 제자리에 제대로 쓰일 때 각 분야의 학문도 발전할 수 있고 곧 이 나라 문화의 바탕이 되는 게 아닐까요. 국어학자, 교사, 기자들의 우리말에 대한 책임은 그만큼 크지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고를 거쳐 67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모범생’ 남영신 소장이 ‘우리말’로 인생의 방향을 꺾은 것은 대학 1학년 때. 당시 외솔 최현배를 중심으로 펼쳤던 한글전문운동에 동참, 법대 내에 국어운동학생회를 조직하면서부터다. 박정희 정권의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의 물결이 일면서 ‘법학’ 자체에 회의와 무력감도 느꼈다. 불운한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러하듯 방향의 나날 속에 철학도 기웃거리고 종교도 들여다보았으며, 정치 경제학에서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했다. 4학년 때는 해인사로 들어가 성철스님 아래 수도생활도 겪었다. 결국은 ‘언어’의 문제로 돌아왔고, 평생의 업이자 생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려운 생활의 고비 속에서도 간직했던 “국어학의 발전이 사전의 발전과 비례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앞으로도 계속될 모양이다. 국어사전에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할 중고생용과 초등학생용 《훈 국어사전》 작업을 마치고 나면,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남영신 소장 자신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다. 우리는 얼마나 사전을 들춰보며 우리말을 쓰고 있는지 그의 작업을 통해서야 비로소 반성하게 된다.

— 김지원 기자